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이 한 몸 불살라 불국토 이루리

#### 금동약왕보살좌상(金銅藥王菩薩坐像)

높이 27cm, 최대폭 13cm의 이 작은 보살상은 대구 동화사의 전래유물이다. 2009년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발견된 팔공산(八公山) 동화사(桐華寺) 도록에는 사명대사(四溟大師)의 다른 유물과 함께 분류되어 있다.

사명대사의 다른 유물이라고 전해지는, 활동으로 된 금강령(金剛鈴)과 금강저(金剛杵), 영남도총섭인(嶺南都總攝印)등도 함께 있어서 아마 사명대사의 유물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중요한 보살상이다.

《법화경(法華經)》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에 의하면, 오래 전에 약왕보살은 일월정명덕불(日月淨明德佛) 밑에 일체중생희견(一切衆生喜見)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살님이었다. 약왕보살은 오랜 고행 끝에 자유자재로 화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약왕보살좌상

스님들은 불교를 구하기 위해서 소신공양을 올린 것이었다. 그 후 독재정권이었던 베트남정권은 망하고 말았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3년 동안 무문관(無門關) 수행을 마친 수자인 문수 스님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고,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焚身)한 일이 있었다.

이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과 불국토를 위한 공양을 올리기는 보물 불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수계식을 할 때, 향

일주를 가지고 몸에 살짝 대어 아주 작은 점 같은 연비를 찍을 때도 몸을 사리는 불자들을 가끔 보는데, 몸 전체를 태우는 것은 실로 무모한 짓처럼 보인다.

어쨌든 진정한 소신공양은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을 태우고, 업장을 태우고, 번뇌를 태우는 일이 아닐까 한다.

어차피 수행이라는 것은 신심(身心)을 모두 태워 없애서 일체의 업을 소멸하는 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나간 실수와 죄업을 모두 태워버리고 불사초처럼 새로 태어나고 싶기도 하다.

머칠 전 중국의 탄압적인 티베트 지배에 항거하는 민주화 시위에 티베트 스님들 중 23번째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분신했다.

부디 시원한 극락세계의 연지(蓮池)에 아름다운 연꽃 위에 화생(化生) 하십시오.

29세에 출가해 경남 은하사에서 참선수행을 시작한 설봉 스님은 1970년대 초 서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흙과 불은 도예가의 위대한 스승”

## 설봉 스님 도예전 28일까지 포스코 갤러리서

“이 거친 손으로 내 어이 너를 빚었으랴! / 이 어두운 영혼으로 내 어이 너를 구었으랴! / 어둠의 가마 속에서 처음 너를 본 순간 / 내 심장의 박동은 멎었지만 / 너의 신성한 숨소리가 가마 속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 굳은듯 떨리는 두손이 / 감히 너를 만져 보지도 못하고 / 뉘를 풀어 놓고 주저 앉아 있을 때 / 너는 한 점 더러움 모르는 하얀 가슴으로 나를 안고 / 혼탁한 세상 점잖게 밀치며 가마 밖으로 나왔다... (생략)” (설봉 스님의 ‘백자앞에서’ 중에서)

30여 년간 도자기를 빚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군 장병과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온 설봉 스님이 2월 28일까지 포스코갤러리에서 ‘마음으로 보는 도예전’을 연다. 설봉 스님은 황학산 토함암의 달빛을 느낄 수 있는 도자기 100여 점을 선보인다.

설봉 스님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세계적’이라는 신념으로 백자의 전통을 이어 오면서 재유약(참나무나 고령토 등을 태워 그 재료 만든 유약) 개발에 몰두해 천연재료 교유의 신비로운 색상을 재현해냈다.

‘설중매’ ‘별이 쏟아지는 해변’ ‘헌다 잔’ 등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전통 달항아리 표면에 시·연꽃 등을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스님은 도자기 하나하나에 시제(詩題) 같은 이름을 붙이고 재유약의 특성대로 명주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매력을 발산시켰다.

경남 김해 출신인 설봉 스님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뒤 신상옥 감독의 연출부에서 감독수업을 하며 영화인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해외촬영을 위해 여권을 신청했다가 부친이 남로당 간부라는 이유로 연좌제의 희생양이 돼 꿈을 접었다.

29세에 출가해 경남 은하사에서 참선수행을 시작한 설봉 스님은 1970년대 초 서

울 신길동에 ‘무애원’을 설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며 봉사와 포교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무애원어린이민속공연단’을 구성해 군 포교를 하고, 군인을 위한 일요법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강화도 가마터를 소개받아 1992년 ‘무애원’을 강화로 옮겼다.

100평의 작업장에서 스님은 도예작업을 본격화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절을 찾는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요법회를 보러 오는 장병들을 위해 군법당 ‘기룡사’도 건설했다.

2009년 11월 강화의 시설을 해병대에 기증하고 경북 칠곡에 자리를 마련한 스님은 칠곡의흙과 돌로 개발한 유약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스님의 작업장 ‘토함암’은 남골당 용도로 지어졌다가 여러 사정으로 방치돼 있던 3층 건물을 수리해 법당과 다도생활관, 도자기전시관으로 꾸미고 도예체험객을 위한 요사채도 갖추었다.

이곳에서 스님은 ‘흙내음 도예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수백점의 작품을 만들어 왔지만 지금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불앞에서 혹은 흙 앞에서, 때로는 바람과 물이나 돌 나무들까지도 위대한 스승이라 생각이 든다.”

스님은 “노천전시를 시작하던 2년이 지났지만 작품을 흠쳐간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말했다. “수십년을 흙을 만지고 불을 때면서 작품을 만들어 왔지만 지금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불앞에서 혹은 흙 앞에서, 때로는 바람과 물이나 돌 나무들까지도 위대한 스승이라 생각이 든다.”

실패의 연속에서 어쩌다 뛰어난 작품을 만나면 도예의 재료를 아낌없이 준 자연에게 감사하고, 자신이 만든 생각은 추후도 없어지는 것이 도예인들의 생각이다. 설봉 스님도 마찬가지다.

설봉 스님은 “자신의 예술적 한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한다”며 “자연 속



100여 점을 전시한 설봉 스님은 판매 수익금을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게끔 도우미 역할을 한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다 태워 불이 되고 육신을 다 태워 흙이 될 때까지 쉬지않고 도공

## 월정사성보박물관, 3월4일 불교문화대학 개강

### 문화반·민화연구반 모집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원행)은 3월 4일 문화반·민화연구반을 개강한다. 문화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와 우리역사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불교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를 겸한 강화를 월 2회 개최한다.

문화반 수강생은 수덕사·송광사성보박물관 등 사찰박물관을 비롯해 태안 마애삼존불, 경주남산 칠불암 등 불교 문화유산을 답사하게 된다.

민화연구반에서는 민화그리기를 통해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온 우리 선인들의 자취를 배우게 된다. 전국민화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오인호 작가가 민화에 대한 개론을 비롯해 까치호랑이, 모란도, 연화도 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12월까지이며 수강료는 문화반은 학기당 10만원(답사비 별도), 민화연구반은 학기당 30만원이다. 접수방법은 월정사성보박물관(www.woljeongsamuseu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월정사성보박물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033)339-6633-6 이나은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잡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빙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다라니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俄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f.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윤행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문과소통: 02-2632-8739, buddhapi5@daum.net

**천수불교**

**관세음보살님** 가액 29만원 (재질: 청동, 최대 22cm x 높이 30cm)

**석가모니부처님 고행상** (재질: 청동, 높이 30cm) 가액 29만원

**100불이상 주문시 박정희대통령, 김대중대통령 위토도자기 드림!!**

**지장보살님** (재질: 청동, 높이 30cm) 가액 29만원

대만 동북부 상공에 흑룡을 타고오신 관세음보살님 성상을 모시던 행운이 있습니다. 최고급액자 특수유리(가로 35cm x 높이 40.2cm) 가액: 29,000원

농협 187-02-274348 천수불교 | 주문 010-2506-2425 이양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南陽 后人行孝 伏魔 靈駕

고급 밤나무 재질

울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후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출페이지 : www.dya.xo.st